온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지금 이 세계戒

⑦ 불이(不二)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여름휴가가 시작된 7월 말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타는 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정말 '타들어 간다'는 말이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날씨였다. 뉴스만 보더라도 더위에 관한 소식이 첫머리를 장식했고, 지역별 최고 기온과 날씨 소식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기록됐다는 뉴스는 더위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무더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해일지도 모르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 같은 8월의 무더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2026년 여름의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럽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먼 유럽의 일' 정도로 여겼지만,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보다 뜨거운 기온이 우리나라를 뒤덮었고, 거기에 지독한 습도까지 더해져 길에 나서는 것조차 무섭고 걱정해야 하는 시기를 보냈다.

어쩌다 이런 날씨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책임에 대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편의에 맞춰 살아왔다.

우리는 지구의 무수한 자원이 마치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 그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간이 살지 않는 공간에 과감히 버리고 있다.

또한 다른 생명들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어떠한 배려와 자비도 없이 가두어 기르고, 노동을 시키거나 잡아먹어 왔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공간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산을 깎아 땅을 만들고, 다니기 편하게 산을 뚫기도 하고, 바다를 덮어 땅을 만들고, 자연이 만든 물줄기를 돌려 인간만을 위해 쓰고 있다.

불과 몇 가지의 예시를 거론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지구에 대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했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없이 내어주고 자비롭게 바라봐주던 지구가 참다못해 이런 날씨로 우리 인간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다. 경고를 준다는 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경고를 무시한 채 이대로 살아가며 더 큰 재앙을 만나 그 탓을 다른 것에만 계속 돌릴 것인지, 아니면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 인간도 지구 속의 한 중생임을 깨닫고 다른 생명과 함께 화합해 지구 속에서 잘 살아갈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결정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

보살계의 첫 번째 계목(戒目)은 '불살생(不殺生)'이다. 율장의 경우 승가에 출가한 비구·비구니를 중심으로 하기에 '불음'이 첫 번째인 반면, 보살계(특히 대승불교)의 경우 중생과 함께하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 첫 번째로 '불살생'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살계에서의 불살생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지지계(止持戒)적 내용을 넘어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작지계(作持戒)적 실천행을 담고 있다.

7월 말부터 40도 웃도는 더위 이어져
이상기온 현상, 전 세계적인 지구 문제

인간 중심의 생명·자원 착취가 원인
지구 경고 앞서 불교 가르침 되새겨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불이의 하나로서 지구 위해 실천해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우리와 함께 이 법계(法界)를 살아가고 있다. 전통불교에서는 육도윤회에 들어 있는 존재만을 중생(衆生, Sattva)으로 여겼으나,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이라 하여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산천초목실개성불(山川草木悉皆成佛: 산과 강, 풀과 나무 모든 것이 다 성불할 수 있다)'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됐고, 이제 지구에 있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설하는 가르침이 됐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과 더불어 '모든 생명 있는 존재', '불살생'의 대상은 이제 지구 속의 모든 유정과 무정까지 확대됐다. 사찰에서 새벽예불마다 독송하는 '이산혜원선사 발원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유정(有情)들도 무정(無情)들도 일체종지(一切種智) 이루어지이다"라고 마친다.

이처럼 불교는 항상 우리에게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불교 역시 인간만의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편의와 이익에 눈이 멀어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외면해 왔으며,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 지구를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실천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처럼 나 한 명의 편의는 다시 전체로 퍼질 것이고, 그 전체는 다시 무서운 과보가 되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크나큰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한 명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행(行)한다면, 그 행의 선업(善業)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전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질 것이다. 지금은 지구라는 크나큰 전체가 심각하게 다쳐 아파하고 있다. 그 상처는 다름 아닌 작은 한 부분인 인간이 준 것이다.

그렇기에 일체(一切)를 이제 일(一)이 치유해 주고, 그 안의 일(一)인 우리가 일체(一切) 속에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사찰의 불상 옆에 있는 발원패에 '국태민안(國泰民安) 우순풍조(雨順風調)'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다. '국태민안'은 나라가 태평하고 민중이 안락하기를 발원하는 것이고, 국태민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순풍조'가 필요하다. '우순풍조'는 제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우순풍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태민안만 바라다 보니 이런 날씨 속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매년 여름에 올해와 같은 40도의 불타는 더위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날씨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날씨가 찾아온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바른 날씨로 되돌려야 한다.

올해도 어떻게든 간신히 이 여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여름 뒤에 예측할 수 없는 추위의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치료)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매년 그때그때에 맞춰 간신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이제 우리의 행동[身]과 동참[口]과 마음[意]이 필요하다.

'보살외인 중생외과(菩薩畏因 衆生畏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지만, 중생은 결과만을 두려워한다)'는 가르침과 같이, 언제까지 결과만을 탓하고 남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의 삶으로 그 잘못의 원인을 바르게 인정하고, 원인에서부터 바르게 고쳐 그것을 토대로 바른 이어짐이 일어나 지구 속의 우리가 연기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실천해야 한다.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또한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불이법문(不二法門)'과 같이 지구와 중생과 우리는 불이(不二)의 하나[一]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 그 지구 속의 우리도 불타고 있다. "불이야"를 외치며 내 몸을 챙기기 전에 지구의 모든 존재가 '불이(不二)'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자.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